

##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 축하 메시지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과 교락을 같이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불교의 전통과 유산을 잘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단의 구분을 넘어 불교중앙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산 교육장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곧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신뢰가 높고 통합된 사회, 질병과 노후,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이 없고 성취의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쾌적한 환경과 품격 있는 문화를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라와 중생을 먼저 생각하며 화합과 상생을 실천해 온 불교계가 이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